

40도를 오르내리던 무더위와 숨쉬기 힘들었던 미세먼지도 주께서 이땅에 비를 내리시니 기온도 내려가고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됩니다. 태국이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한 번씩 쏟아지는 비는 지친 육체에 쉼과 여유를 줍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단비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땅끝 53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새 식구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1년 5개월간 함께 생활했던 뼈아픈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전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매 한 명을 저희집에 들였습니다. 국경지역 와위마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치앙라이 직업학교에 입학한 **관**(18세)이라는 자매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에 서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관이 치앙라이 비전교회의 일꾼으로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치앙라이 비전교회

1. 송끄란 전교인 물놀이(4월 20일)

태국의 가장 무더운 여름이자 새해인 **송끄란 축제** 기간에 비전교회 식구들이 믿지 않는 몇몇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미세먼지로 힘들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 물놀이는 너무 재미있었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삶에 지쳐 일상에서의 여유조차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없이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며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치앙라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교육부서

4월 30일-5월 3일 4일간 청소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예배와 성경공부 중심으로, 오후에는 영어교실, 한국어교실, 악기교실을 했습니다. 김밥도 만들고, 피자도 먹고, ... 맛있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온 관을 중심으로 라차팻 대학에 입학한 학생 2명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 대학생들 5명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을 중심으로 릭워렌 목사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공부를 계획 중입니다. 청년들이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이들을 중심으로 예배 찬양팀을 조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악기와 앰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자드럼, 기타, 키보드 등. 악기와 앰프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치앙마이 비전교회 설립 2주년

6월 30일 비전교회가 설립 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두 살이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2주년을 지나면서 영적 영양분들이 많이 공급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함께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성도신학교 상황

2024년 5월 18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얀마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5명의 학생까지 모두 30명의 학생들이 이번 학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끌려가기 싫어서 온 친구도 있고, 배가 고파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부모의 강압으로 온 친구도 있지만, 사명감으로 신학교에 온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확인하여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가족들 이모저모

아내 이금숙 선교사와 저는 치앙마이 비전교회 목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인이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하림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민하는 대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최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동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17)

땅 끝에서 윤상호, 이금숙(아인, 하림, 민하) 선교사
2024년 6월 7일

